

씨트리, 당뇨치료제 중간체 합성법 특허출원

대화제약이 최대주주인 생명과학 벤처기업 씨트리는 12월21일 당뇨병 치료제 보글리보스(Voglibose)의 핵심 중간체 Valienamine 제조방법을 개발해 국제특허(PCT)를 출원했다고 12월21일 발표했다.

Valienamine은 지금까지 경제적인 합성방법이 없어 구하기 어렵고 kg당 가격이 3만달러가 넘는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

씨트리 관계자는 “특허출원한 기술은 기존방법보다 경제적이면서 공정이 단순화된 획기적인 방법으로 2006년 국내에서도 보글리보스 제네릭약품의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Valienamine 시장이 급격히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화학저널 2005/12/22>